광주상의, 유망기업 신산업 돕는다

10개사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지원 협약

신제품 개발·공정개선·기술애로 해소 등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유망기업들이 기존 사업 영역에 미래 핵심기술을 융복합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광주상의는 전날 지역 유망기업 10개사와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집중 기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사는 ㈜대웅에스엔티, ㈜베스텍, 뉴몰드㈜, (유)아주환경, ㈜나우메디, ㈜담우광학전자기술, ㈜광명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 엔텍스㈜, 누리오㈜ 등이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유망기업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집중 지원 분야는 신사업 도입, 신제품 개발지원, 신기술 융복합, 공정개선, 기술애로 해소 지원, 연구개발(R&D) 제안서 작성 등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신기술 도입을 통해 희망하는 신사업 분야 진출 지원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AR·VR)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신기술 전문가들의 집중 기술지원을 통해 협약기업들이 자사 주력제품에 미래 핵심기술을 융복합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TP,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진공 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최근 전남테크노파크 전용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테크노파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잠재력 있는 지역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품·제조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지원 ▲제품브랜드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제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식재산 기업애로사항 정기상담실 운영 ▲재직자 맞춤형 지식재산 전문인력 교육 등 기업 발굴과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최근 본사 전용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이와 더불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등 장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상호, 제품명, 제조방법) 등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 협력과제도 논의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장수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중기·소상공인 "방역체계 개편해야"

경제활동 보장 '위드 코로나' 전환 강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5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 체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한 상태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이나 식사시 PCR 검사 결과 제출자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길어지고, 지난 7월부터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24만명이나 줄어든 반면,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는 1인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다.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방역 정책은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방역은 엄격히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를 목표로 새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페, 식당, 전시업체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91.4%가 7~8월 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63%가 현 방역 체계가 지속될 시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6.0%, 약간 고민 37.0%)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오지현 기자

중기 정책자금 추가 지원

광주지역 122억원 편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2차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중진공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창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기반지원자금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한다. 이 중 광주지역본부에는 전체 확보예산의 4.1%가량인 122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제품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지현 기자

유탑건설, 전국 시공능력 '99위'

광주지역 중견기업 유탑그룹(회장 정병래·사진)이 올해 연간 수주 1조3,000억원을 목표로 공격적인 경영행보를 펼치고 있다.

유탑그룹 계열사인 ㈜유탑건설이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99위를 기록하며 100위권 내에 진입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5일 유탑건설에 따르면 2018년 239위에서 2019년 139위, 2020년 130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31계단 올라 9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주 유탑 유블레스 리버뷰, 하남 미사 U테크밸리, 구리 유탑 유블레스, 여수 유탑유블레스 등 신규 착공이 증가하고 공사 계약과 수익이 함께 늘어 건축 부문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유탑건설은 자체 분석했다.

공격적 경영 올해 수주액 1조 3천억원 무난

정병래 유탑그룹 회장 "메이저 건설사 도약"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익산 인화동 민간임대주택 도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광주시 봉선동 주상복합아파트, 전북 익산 창인동 주상복합아파트, 경남 창원시 사림동 중앙역 오피스텔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실적에 청신호를 켰다. 하반기에는 '남원 월락 유탑 유블레스 킹덤'의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군산 미룡동 공동주택 자체 사업도 준비 중이다.

또한 2,100억원 규모의 대전 대화동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후 울산 우정동, 사천시 정동 및 경산 사정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구리 남양시장 정비사업 등을 잇달아 주택개발·정비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래 회장은 "올해 신규 착공 및 진행 중인 현장이 늘어나고 수주와 도급 계약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전국 현장 곳곳에서 힘써주고 있는 750여 명 임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평 순위 상승으로 자신감과 경쟁력까지 확보해 2021년 연간 수주 1조3,000억 원, 매출 5,900억 원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계기로 브랜드 파워 강화에도 힘써 메이저 건설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8년 광주시 치평동으로 신사옥을 이전하며 'VISION 2030, 1010'을 선포한 유탑그룹 정 회장은 2030년까지 매출 10조, 시평액 10조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사고와 추진력, 리더십으로 투자와 경영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유탑그룹은 코로나로 관광업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제주·여수·광주에 1,167개의 객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호텔 레저 사업으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M&A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 사업 다각화를 통한 메이저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서미애 기자

호남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경진대회 개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농업통계 담당 직원들의 통계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업면적조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강진군 병영면 표본조사구에서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농업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대회에는 각 부서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작물 식별, 작물별 재배면적·경작가능면적 측정 등이 평가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청장은 "농업면적조사는 연 5회 실시되는 통계조사로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등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통계인 만큼 정확한 현장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호남지역의 농업통계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에도 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농업통계 담당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역량 강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큐비클 제작·시공전문업체 CUBICLE [주]중원큐비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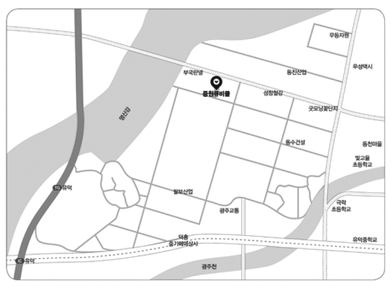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M : 010-3647-3832
F : (062)525-3832 E : jwc3832@nate.com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